

#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7 년 8 월 6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917-622-2471

<http://tltcnyc.org/>

#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8월 6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희망가" (시, 문병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절망이라는 씨앗" (시, 김종제)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7,1-17

화두: "희망을 갖기도 힘든 상황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혹은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해나

"희망을 위하여" (시, 곽재구)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길" (지오디 god)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 한 마음 한 노래 (시)

### 희망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해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틔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밧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뺏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 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고비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시, 문병란 - 낭독: 장동인)

## 한 마음 한 노래 (시)

### 절망이라는 씨앗

산봉우리가 폭발하여  
불흙에 손발이 묻히고  
땅이 갈라져  
얼음바위가 등허리를 덮치고  
마침내 최후의 순간  
그때 비로소 저 밑의 지하에서  
한껏 부풀은 씨앗이 터지고  
강철을 밀치며  
희망은 한 뼘씩 올라오는 것이다

### 누군가

절망을 던져놓고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으니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거나  
어둠 속으로 달아날 일이 아니므로  
오랜 가뭄에 단비처럼 동참하라  
흔쾌히 못에 박혀 피를 흘려라

### 지상에 닿은

비 한 방울에도  
무덤에 적신 피 한 방울에도  
화들짝 깨어나는 목숨이 있으니  
그 모든 절망은  
씨앗을 가득 담고 있는  
우주를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 김종제 - 낭독: 김웅)

##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7,1-17**

**화두: "희망을 갖기도 힘든 상황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혹은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 2017년 8월 6일**

7:11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갔다. 7:12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때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7:13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하시며 7:14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 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다. 7:15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7: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7:17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7:11 Soon afterward, Jesus went to a town called Nain, and his disciples and a large crowd went along with him. 7:12 As he approached the town gate, a dead person was being carried out--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And a large crowd from the town was with her.

7:13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he said, "Don't cry." 7:14 Then he went up and touched the coffin, and those carrying it stood still.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7:15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talk, and Jesus gave him back to his mother.

7:16 They were all filled with awe and praised God. "A great prophet has appeared among us," they said. "God has come to help his people." 7:17 This news about Jesus spread throughout Judea and the surrounding country.

## 한 마음 한 노래 (시)

### 희망을 위하여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은 껌안은 두 팔을 놓지 않으리

너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두터운 네 몸 위에 내려 앉는  
겨울날의 송이눈 처럼 너를 포근하게  
감싸 껌안을 수 있다면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네 곁에 누울 수 없는 내 마음조차 더욱  
편안하게 어머니의 무릎 잠처럼  
고요하게 나를 누일 수 있다면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으리  
두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질러오는  
한 세상의 슬픔을 보리

네게로 가는 마음의 길이 굽어져  
오늘은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게로 가는 불빛 잃은 발걸음들이  
어두워진 들판을 이리의 목소리로 울부짖을지라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은 껌안은 두 손을 풀지 않으리

(시, 광재구 - 낭독: 해나)

#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길

작사 박진영  
작곡 박진영  
노래 GOD

ORIGINAL Db  
R & B

내가가는이길이 어디로가는지 어디로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 렇 게 또 걸 어 가 고 있 - 네

나는웨이길 에 서 - 있 - 나 이 게 정 만 나 의 길 - 인 - 가 - 이 길 의 끝 에 서 내 - 꿈 - 은 - 이 - 뭘 - 질 - 까 우 었 이 내 게 정 말 기쁨 을 주 는 지 돈 인 지 명 언 지 아 니 면 내 가 사 랑 하 는 사 랑 들 인 지 알 고 싶 지 만 알 고 싶 지 만 알 고 싶 지 만 아 적 도 답 을 내 릴 수 없 - 네 자 신 있 게 나 의 길 이 라고 말 고 싶 고 그 렇 게 믿 고 돌 아 보 지 않 고 후 회 도 하 지 않 고 걸 고 싶 지 만 걸 고 싶 지 만 걸 고 싶 지 만 아 적 도 나 는 자 신 이 없 - 네

까 나 는 무 엇 을 꿈 꾸 - 는 - 가 그 건 누 굴 위 한 꿈 - 일 - 까 - 그 꿈 을 이 루 면 난 - 웃 - 을 - 수 - 있 을 - 까 오 - 지 금 네 가 어 디 로 어 디 로 가 - 는 걸 - 까

나는무엇을위해 - 살아야 살아야 만 - - 하 는 - - 가

까

F.O.

##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이런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소서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  
항상 푸른 잎사귀로 살아가는 사람,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

오늘 거친 삶의 별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런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